▢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1. 출제의도

인문사회 논술에서는 주어진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조직하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주어진 정보들 사이에 숨겨진 이면, 정보 사이에서 함축하고 있는 또 다른 논쟁 등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 문제는 여러 교과에서 언급하고 있는 범교과적이면서도 통합적인 주제이다. 각 교과에서 조금씩 파편적으로 접했던 정보들을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문제 상황을 재구성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범교과적인 사고가 가능한지, 보편타당한 판단이 가능한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2. 문항해설

본 논제의 경우, 문제 자체만 읽은 후에는 개요의 대략적인 방향만을 가늠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제시문을 읽어나가면서 스스로 판단하면서, 논의할 내용을 스스로 재구성해야 한다. 이 논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접근해야 한다. 첫째, (가) 제시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를 좀 더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쟁론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반드시 (나), (다), (라)에서 주어진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이로써 후반부 논의를 전개할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진다. 둘째, 스스로 재구성한 문제점과 쟁점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자신의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관점 제시에 필요한 틀은 (마), (바), (사)에서 도출해 내어야 한다.

(가)에서는 유엔기후변화 협약의 목적과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의무를 지니고 있음을 명시하고, 또한 의무 부과하는 데에도 원칙이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협약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된 원칙에 따라 의무를 '협상'하기에는 선진국과 개도국 각각의 입장 차이가 크다. 이후 (나), (다), (라) 제시문에서 이를 좀 더 구체화하여 제시할 수 있다.

(나)에서는 선진국의 입장에서 환경 분야 신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포기하고 개도국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가 어려움을 논의하고 있다. 환경 분야 신기술 역시 지적재산권의 일종이므로 기본적으로 보호받아야 하지만, 환경 기술은 공익적 특성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선진국이 개도국의 입장을 완전히 외면할 수도 없다는 것을 제시문에서 추론해낼 수 있어야 한다.

(다)에서는 탄소배출 에너지의 대표격인 석유가 우리 일상 구석구석에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 제시문에서 추론해 내어야 하는 정보는 현 산업 구조가 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는 석유 등 화석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정보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 과정이 생소할 수 있는데, (다) 제시문은 단지 정보 전달만 하고 있어, 논쟁점이 명시화되어 있지 않는 글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논제가 선진국과 개도국 각 입장을 고려하여 논쟁점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다)와 같은 글에서도 자신의 관점을 투영하여 논쟁점을 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라)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열대림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현황을 기술하고 있으며, 또 그 이유도 제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개도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의 책임을 상당부분 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그 근거로 제시된 '다국적 기업과 기름야자 농장 플랜테이션' 정보에 유의하여 선진국과의 관계를 추론해 내어야 한다. (라) 지문 자체만으로 충분히 추론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하여, (라) 제시문의 정보를 재해석할 수 있는 장치

를 (사) 제시문에 한 번 더 마련해 두었다.

(마)에서는 인기 있는 농구 선수가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롤스의 정의론과 대척점에 서 있는 노직의 정의론을 함의하는 사례로, 노직이 직접 예시로 든 것이다. 그는 사회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하면서, 개인의 소유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사회 정의라고 본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전제로 한 논의지만, 이를 바탕으로 논제가 의도하고 있는 방향대로 유추적 사고를 할 수 있다. (마)에서의 '체임벌린'은 '선진국'에, '사회'는 '국제 사회'로 유비 추리하여, 선진국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바)에서는 사회적 가치는 당사자들이 서로 다르게 이해할 수밖에 없음을 논의하고 있다. 이 역시 논제에 따라 유비 추리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각자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입장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도출해 내어야 한다. 각자 나름의 역사 문화적 입장 차이를 기술하거나, 나름의 입장 차이가 있으므로 협상을 어느 한쪽에만 강요할 수 없다거나, 역사 문화적 입장 차이를 고려할 때 역사적 책임은 선진국에 있으므로 개도국의 입장을 더욱 고려해야 한다는 등의 기술을 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

(사)에서는 서양 열강이 산업 혁명 이후 급성장하였고, 제국주의적 정책에 따라 식민지를 통해 국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던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유럽 제국주의 국가가 동남아시아에 플랜테이션 농장을 조성했던 사실은, (라)에서 언급되었던 개도국의 현실이 역사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발견해 낼 수 있는 단서이다. 이로 인해 (라)에서 보여주고 있는 개도국의 현실에 대하여, 신제국주의적 현상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만약 (바)에서 언급하고 있는 역사 문화적 입장 차이를 추상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면, (사)를 활용하여 (바)를 더욱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3. 채점기준 및 참고사항

- (가) 제시문의 내용을 압축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는가?
- (가) 제시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쟁론화하고 있는가? 이때 (나), (다), (라)에 주어진 정보를 타당하게 활용하고 있는가?
- (가)와 (나), (다), (라)를 종합하여 쟁론화한 내용을 글을 마무리하면서까지 논지 전개의 바탕으로 삼고 있는가?
- 쟁론화한 내용에 대하여 자신의 관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이때 (마), (바), (사)에 주어진 정보를 타당하게 활용하고 있는가?
- (나) 제시문이 의미하는 바를 타당하게 해석하고 추론하였는가?
- (다) 제시문이 의미하는 바를 타당하게 해석하고 추론하였는가?
- (라) 제시문이 의미하는 바를 타당하게 해석하고 추론하였는가?
- (나) 제시문에서 환경 문제가 공익적 특성을 지닌다는 점을 아예 주목하지 못하였다면 감점.
- (다) 제시문에서 현 산업 구조가 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추론하지 못하고, 주어진 정보를 나열하여 활용하고 있으면 감점.
- (다) 제시문을 활용하여 현재 산업 구조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는 추론까지 하고 있다면 가산점
- (라)에서 '다국적 기업과 기름야자 농장 플랜테이션' 정보에 유의하여 선진국과의 관계를 추론해 내지 못하고 있다면 감점
- (마) 제시문이 의미하는 바를 타당하게 활용하였는가?

- (바) 제시문이 의미하는 바를 타당하게 활용하였는가?
- (사) 제시문이 의미하는 바를 타당하게 활용하였는가?
- (마)에서 '체임벌린'을 '선진국'에, '사회'는 '국제 사회'에 유비추리하지 못하고 개개인의 실천 문제를 도출해 내기 위한 근거로만 삼는다면 감점
- (사) 제시문을 (라)를 깊이 있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으면 가산점
- (사) 제시문을 (바)를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로도 삼고 있으면 가산점

[유의사항]
선진국이나 개도국 어느 한쪽 입장을 지지하거나, 양쪽 모두의 입장을 공정하게 기술하거나 상관이 없다. 즉, 수험자가 양쪽 중 어느 입장을 지지하는가가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는 제시문에서 알 수 있는 정보들에서 많은 문제를 발견해 내고, 그 절차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예시답안 및 예시답안에 대한 근거

(예시 답안)
공동체 전체의 존속을 위해 탄생한 기후 변화 협약은 협약 주체 간의 형평성 보장을 위해 능력에 따른 차별화된 의무 분담을 그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이들간의 기술적 능력의 차이, 발전 정도의 차이, 그리고 힘의 우위에서 기인한 거대자본의 자원 소비 등의 이유로 협약의 '형평성'에 대한 논쟁과 의문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먼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환경기술 차이는 근본적인 환경오염요소 관리능력의 차이를 의미한다. 그런데 (나)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술 보유국과 미보유국 간의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 분쟁은 당연히도 기술 미보유국의 기후 변화 협약 참여 의지 저하로 귀결된다. 또한, (다)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현 산업구조가 화석에너지 중심이라는 사실도 환경문제에 대한 협상을 어렵게 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현대 사회에서 지리적 경계인 국경만을 기준으로 환경보호 의무를 분담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라)에 제시된 인도네시아의 예와 같이, 개발도상국들이 경제적 우위를 기반으로 한 다국적 기업의 '배출구'로써 희생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기후 변화 협약을 인류 공동체의 발전과 존속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들의 실질적 차원에서의 '관용'이 필수적이다. (바)에서 역설하는 바와 같이, 각 사회는 서로 다른 발전 정도와 역사, 가치를 지니므로 먼저 그 길을 걸어 발전을 이룬 선진국들이 기술·책임분담을 분배하여 감수하는 것이 상생의 방법일 수 있다. 물론, (마)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효율성'과 '수요'의 원칙을 따른다면 이러한 배려가 매우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사)에서 제시된 것처럼 선진국들은 환경 오염과 착취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지해야 하며 그들의 발전 역시 '우월한 기술'이 아닌 '선구적 파괴'를 기반으로 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시 답안에 대한 근거)
이 답안에서는 주어진 정보들 사이에 숨겨진 이면, 정보 사이에서 함축하고 있는 또 다른 논쟁 등을 적절히 발견하고 있다. 첫 번째 문단에서부터 그 능력이 탁월히 드러난다. (가) 제시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를 정리하면서 주어진 제시문들 사이에서 함의하고 있는 바를 함께 압축적으

로 재구성하여, 두 번째 문단 이후 내용을 전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나), (다), (라)에 주어진 정보를 효율적이면서도 타당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특히 (라) 제시문에서 선진국과의 '관계'를 읽어낼 수 있는 정보를 찾아내었다는 점에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세 번째 문단에서 역시 자신의 관점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마), (바), (사)의 위상을 적절히 재구조화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특히 (사) 제시문이 의미하는 바를 단편적으로만 활용하지 않고 첫 문단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전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에 가산점을 줄 수 있다.